

## 내 용 : 『노동리뷰』 2월호 - 이슈분석

---

### ■ “노동비용과 임금수준의 국제비교”(김승택 연구위원, 강승복 연구원)

- 우리나라의 노동비용 상승 속도, 28개국 중 가장 빨라

※ 1990년 이후 우리나라의 노동비용 상승속도는 비교대상 28개 국 중 가장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1990년부터 2003년까지 우리나라의 노동비용 상승속도는 279%로 우리나라 다음으로 빠른 싱가포르의 199%보다 월등히 앞서고 있음.

- 향후 구체적인 직무 분석과 투명한 평가시스템, 효과적인 성과급체계 등을 통하여 노동생산성과 연관된 임금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과제

문의처 : 데이터센터 동향분석팀 김용현 연구원

Tel: 783-7155 E-mail : yhk08@kli.re.kr

\* 한국노동연구원 보도자료 및 원문은 인터넷(<http://www.kli.re.kr>)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노동비용과 임금수준의 국제비교

담 당 자	김승택 연구위원 강승복 연구원
전 화	02)780-9039 02)782-0141(317)

### ○ 우리나라의 노동비용 상승 속도, 28개국 중 가장 빨라

- 우리나라의 시간당 보수(노동비용)는 1975년 이후 1990년까지 완만한 상승을 보이며 미국대비 25% 수준에 도달했다가, 1990년대에 들어 상승속도가 빨라지며 1995년 43%을 거쳐 2003년에는 47%에 달해 있음.
- 우리나라의 시간당 보수 상승속도는 1990년 이후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시간당 보수의 상승속도가 우리나라 다음으로 빠른 싱가포르의 경우 1990년부터 2003년까지 199% 증가한 것 보다 훨씬 높은 279%를 기록하는 것을 볼 때 이와 같은 노동비용의 상승 속도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음.
- 2000~2002년 기간 동안 한국의 시간당 노동비용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특히 1975년부터 매 5년간의 연평균 성장률을 계산했을 때도 1980~84년 구간을 제외하고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음.

### ○ 빠른 임금상승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

- 우리나라의 노동비용이 아직도 미국 등 선진국의 50%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선진국과의 경쟁을 위해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고부가가치 제품의 개발에 역점을 두다보면 임금의 상승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노동비용의 상승속도에 대한 조절이라고 판단됨.

### ○ 노동생산성과 연관된 임금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향후과제

- 급격한 사회적·경제적·산업구조적 변화와 노사관계의 경직성 등으로 인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노동비용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현재의 추세를 감당할 정도의 노동생산성 향상이 불가능하다면 노동비용의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또한 연공급을 중심

으로 경직적인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경우 경기순환이 올 때마다 임금수준의 조절보다는 고용조정으로 이를 돌파하려는 시도가 발생하므로 고용안정의 확보를 위해서도 생산성과 임금을 연계하는 노동비용 체계의 개편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결국 노동비용과 관련된 우리 기업들의 향후 과제는 노동생산성과 연관된 임금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며,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직무 분석과 투명한 평가시스템, 효과적인 성과급체계 등이 동반되어야 할 것임.

〈표 1〉 1990년 불변가격 기준 시간당 보수(Hourly compensation costs)의 지표

국가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순위
Korea	8.7	25.8	33.3	100	196.9	223.3	208.7	244.1	279.0	1
Singapore	22.5	39.7	65.7	100	193.9	197.6	195.3	185.2	198.8	2
Denmark	34.0	58.7	44.1	100	138.5	124.0	126.7	139.6	175.3	3
Portugal	42.2	55.0	40.7	100	141.9	125.1	128.0	141.2	173.7	4
Hong Kong	23.5	46.7	53.7	100	149.21	169.4	178.6	176.1	172.3	5
Ireland	26.0	51.2	50.9	100	116.9	108.3	115.8	130.0	162.5	6
United Kingdom	26.9	59.6	49.4	100	109.3	133.3	130.8	141.8	161.4	7
Japan	23.7	43.6	50.0	100	187.9	174.6	153.6	147.5	160.2	8
Mexico	93.0	139.9	100.8	100	92.6	138.9	159.3	165.0	156.9	9
Australia	42.7	64.4	62.5	100	117.4	110.2	101.3	117.9	152.6	10
Israel	26.3	44.3	47.5	100	123.3	149.1	159.1	142.9	152.2	11
Taiwan	9.7	26.1	38.5	100	151.1	158.8	155.1	147.1	150.2	12
United States	41.9	65.4	86.3	100	115.6	132.2	137.9	143.4	149.3	13
Netherlands	36.6	67.0	48.5	100	133.6	107.5	109.2	120.2	149.2	14
Belgium	33.4	68.4	46.8	100	144.1	112.7	109.8	119.0	145.2	15
Norway	31.7	54.2	48.1	100	114.2	104.1	107.0	125.4	145.0	16
Luxembourg	38.9	71.9	46.7	100	145.9	109.4	107.5	116.9	144.4	17
Germany, former West	28.8	56.0	43.6	100	144.6	109.0	108.4	117.2	144.0	18
Austria	25.1	49.5	42.3	100	141.1	107.1	106.6	115.5	141.7	19
New Zealand	38.6	64.2	53.6	100	122.1	98.8	94.0	107.7	139.0	20
France	29.3	58.0	48.7	100	125.4	100.6	101.9	111.5	137.5	21
Switzerland	29.2	53.1	46.3	100	140.5	101.8	104.7	115.5	135.1	22
Spain	22.3	51.9	41.0	100	112.5	94.4	95.3	105.6	132.5	23
Finland	21.9	39.2	38.8	100	114.9	91.9	93.8	103.0	128.4	24
Sweden	34.3	59.8	46.1	100	103.1	97.0	88.4	97.2	121.0	25
Canada	37.4	54.3	68.6	100	101.1	100.9	99.4	102.2	118.1	26
Italy	26.8	46.8	43.8	100	92.1	81.3	79.9	86.6	106.2	27
Sri Lanka	79.9	61.8	79.6	100	136.1	136.3	128.0	140.9	-	
Greece	25.2	55.6	54.6	100	133.6	-	-	-	-	

자료 : BLS,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Hourly Compensation Costs for Production Workers in Manufacturing, 1975-2003,' 2004, 에서 재구성.